

수은강항[조선중기 학자, 의병장]



- 본 관 : 진주
- 호 : 수은
- 별 칭 : 자 태초
- 활동분야 : 정치
- 출 생 지 : 전남 영광
- 주요저서 : 「수은집」, 「간양록」, 「운제록」, 「건거록」, 「강감회요」 등

일본 피랍과 성리학전수

강항의 자는 태초太初이고, 자호는 수은睡隱이며 본관은 진주이다. 명종 22년(1567)전라도 영광군 불갑면 유봉리에서 좌찬성 강희맹의 5대손인 강극겸姜克儉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재주가 뛰어나 이미 7, 8세 때부터 경사經史에 통하였으며, 일찍부터 우계 성훈成渾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22세 때인 선조 21년(1588)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593년 12월 임진왜란 중 전주에서 치러진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단 9명의 급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후 교서관에 분관되었다가 정자·박사를 거쳤다. 1596년에 성균관 전적·공조좌랑·형조좌랑으로 전임되었다가 이듬해 31세 때에 정유재란을 당하였다.

당시 그는 광해군 본조하의 호조참판으로 있었던 이광정李光庭의 종사관이 되어 군량미의 수송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원성의 함락 이후 향리 영광까지 적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해로로 탈출했다가 모두 왜군에게 피랍되고 말았다.

그 후 강항은 약 열흘 만에 일본 오오즈성大洲城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의 성주는 일본수군의 총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오도 다카도라藤堂高虎이었다. 그 곳에서 해를 넘긴 다음, 이듬해 5월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오오즈성에서 가까운 긴잔산山 숲세키사出石寺의 주지 승려였던 요시히토好仁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은과 한시를 주고받을 정도의 지식인이었는데, 수은의 높은 학문을 존경했던 그가 성주에게 사면을 청원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그 후 오오사카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교토의 후미시성伏見城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에서 고국에 돌아갈 기회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약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여기에서 일본의 지식인 승려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를 만나 그에게 조선의 성리학을 전수시키게 되었다. 후지와라는 수은에게 종유從遊하며 그의 지도를 받는 동안 승복을 벗고 환속할 만큼 성리학에 깊이 빠져든 인물이었다. 그는 수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4서 5경은 물론 『소학』·『근사록』 등 16종의 경서가 수록된 『강항회초姜沆彙抄』를 필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본 성리학의 창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인들에게 그의 학문이 계승됨으로써 일본에 중세 성리철학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강항의 학문과 저술

강항은 피립된 후 3년만인 선조 33년(1600) 5월에 후지와라 등 일본 문인들의 도움에 의해 무사히 고국에 돌아왔다. 귀국 후 1602년 대구교수大邱教授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여 나가가지 않았으며, 선조 41년(1608)에는 순천교수順天教授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오직 향리에서 학문에 몰두하는 가운데 후학양성에 전력을 다하여 그의 문하에서 동토董土 윤순거尹舜擧와 같은 문인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 영광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선비들 가운데 수은의 문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160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강시윤·강시달·강시매 등 그의 자질들을 포함하여 이휘·김전·김담 등의 제자들이 모두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수은 강항의 학문과 그 깊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술들이 적지 않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저술들이 현재 수은의 위패를 모셔둔 영광의 내산서원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저술들의 중요성은 정유재란 중에 천신만고 끝에 수은 강항이 생생하게 기록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저술이 저자가 직접 짓고 쓴 필사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현재 영광의 내산서원에 소장된 강항의 저술들은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되어 2007년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들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양록

수은이 일본에 억류되었을 당시 그 곳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한 저술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처음 서명을 '건거록巾車錄'이라고 이름했으나 효종 7년(1656) 그의 제자들이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 '간양록'으로 개칭하였다. 본래 '간양看羊'이란 흉노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한나라 소무蘇武의 충절을 뜻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강항의 애국충절을 빗대어 명명한 것이다. 현재 이 책은 목활자본과 목판본, 그리고 필사본까지 남아있어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술의 내용은 일본에서 선조에게 올린 「적중봉소賊中封疏」, 당시 일본 각지의 특징을 밝힌 「적중견문록賊中見聞錄」, 귀국 후에 올린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일본 현지에서의 환란생활의 전말을 기록한 「섭란사적涉亂事迹」, 그리고 포로들에게 준 「고부인격告瀾人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간양록』은 적국에서 당한 포로들의 창상과 그 곳에서 보고 들은 실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란에 대비해야 할 국내정책에까지 언급하고 있어 당시 일본의 정보에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문헌사료로 평가된다.

2. 운제록

이 저술은 수은이 평시에 주고받은 시문들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모두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서명을 '운제록'이라고 한 까닭은 그가 운제마을에 살았기 때문이다. 운제마을은 수은이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 주로 이 곳에 거주하면서 자체와 문인들을 가르쳤던 곳이었다. 이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주고받았던 시문들을 직접 필사해 놓은 기록으로 모두 112편의 시문들이 실려 있다.

3. 강감회요

수은 강항이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과 『통감강목』 등을 보완하여 정리한 책이다. 특히 그는 주희의 『통감강목』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미의 『통감절요通鑑節要』와 유우익劉友益의 『통감서법綱目書法』 등을 종합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점만을 뽑아내어 편집한 저술이다. 현종 8년(1667)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규모는 모두 17권 30책으로 각 권마다 상하 2권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책머리에 그의 문인이었던 윤순거의 서문이 붙어있는 책이다. 내산서원에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강감회요』 3책은, 서지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면 수은 말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서 현존 유일의 필사본이라고 한다.

4. 문선주

이 저술은 중국 양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이 진·한 이후 제齊·양梁대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30권으로 편찬한 『문선文選』에 수은이 주해를 부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문인들은 물론 우리나라 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책으로서 수은이 아마 제자들을 위한 강학 교재로 사용하면서 평소에 느낀 점을 주해 형식으로 친히 적어 놓았던 친필본으로 추정되고 있다.